

지역 소식통

고창군, 책읽는 가족상 김우진씨 가족 선정

"가족이 1년에 책을 몇권 읽는지 모른다. 그냥 읽을뿐이다" 올해 고창군 군립도서관(군립도서관·성호도서관)에서 도서 최다대출로 고창군 '책읽는가족상'을 받은 김우진(38)씨. 김씨는 "군립도서관 대출이 편리하고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책을 많이 읽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은 남편 최선권(41)씨와 자녀인 현성(11)·리원(9)·지훈(6) 등 5명이 고창군립도서관에서 822권을 대출했다. 하루에 3권씩 읽은 것이다. 김씨 가족이 도서관에 가면 1인당 5권씩 총25권씩을 빌린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씨와 첫째 아이가 참석했다.

김씨는 "자신은 사회·종교철학 도서, 남편은 소설책을 많이 읽고, 자녀들은 역사책을 많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창군 복합문화도서관이 지어지면 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 전국 1위 쾌거

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에서 전국 유일 최고 등급인 1등급(매우우수)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 대상은 38개 시·군으로, 전남 1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37곳에 대해 이행실적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결과, 고창군은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미곡분야 83%, 밭작물분야 99%)가 높고, 자체 자율평가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를 적정하게 제시해 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매우우수)을 받았다.

전국에서 1등급(매우우수)을 받은 시·군은 고창군이 유일하다.

고창군은 1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기준을 반영하여 내년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대상자 선정평가시 가점 5점을 부여받고, 비 매입자금 추가배정을 받는다. /고창=김영식 기자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당부'

유기상 고창군수, 코로나19 지역확산 관련 담화문

전북 고창군이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선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10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확산일로의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군에선 지난 주말(8일)부터 고창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9~10일 이틀동안 읍내 목욕탕 이용객을 중심으로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이에 유 군수는 "거리두기 완화로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고 가을단풍과 김



장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고 있다"며 "일일신규 확진자가 아직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지만 언제든 급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의 상황이다"고 주의를 촉구

했다. 유 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했다. 마스크쓰기, 손씻기, 거리두기, 타 지역 방문시 적극적으로 검사받기 등의 노력을 나와 공동체를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유 군수는 "특히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나 모임·행사 주최자는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히 기해달라"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동참하는 일만이 지역전파를 막고, '일상회복'이라는 희망을 앞당길 수 있다"며 "고창군도 자랑스럽던 군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위기를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가져

제품 효능·안전성 평가 등 지원

정읍시 신정동 연구개발복구에 소재한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미생물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며 미생물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소한 미생물센터는 전국 220여 개 이상의 농축산 미생물 제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효능검증과 대량 배양 산업화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미생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미생물 제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는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등 2종의 복합 미생물 안전성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 미생물 제품의 효능평가와 안전성 평가, 산업화를

지원하며 국내 유일의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시험분석·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련해 미생물센터는 10일 2021년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미생물산업 육성과 고도화를 위한 산·학·연·관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 전북대학교 기업체 등 농·생명 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전국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생산기업 26개 기업체 46개 분야 지원 건에 대해 보고했다. 센터는 총사업비 14억5천만원을 투입해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검증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미생물 배양과 제형화를 지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부안군이 10일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May I hep you.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다.

오전, 오후 3회에 걸쳐 실시한 교육은 군민들이 바라는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함에 따라 대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군정에 대한 만족도를 거양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휴먼스타코칭연구소 박은선 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 나에게 친절하기, 부정적인 자기대화, 악성민원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지난 10일 줄포 작은목욕탕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기관단체장, 면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도 쌓아가는 사랑방 같은 공간"

부안 줄포면, 작은목욕탕 준공

부안군은 지난 10일 줄포 작은목욕탕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기관단체장, 면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줄포면 작은목욕탕은 총 사업비 11억원이 투입돼 지상1층, 연면적 249.15㎡(약 76평) 규모로 준공됐다. 목욕탕은 온탕 사우나실, 탈의실 등 최적인 목욕시설을 갖추었으며, 작은목욕탕이

지만 여탕과 남탕 모두를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욕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은 물론 이웃 간 정도 쌓아가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동상 건립 기부금 모금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시에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을 위한 기부금 모금이 이어지고 있다.

태인면 이장협의회와 면사무소 직원 일동은 10일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53만 원을 전달했다.

최광술 이장협의회장은 "태인면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우금터 전투에서 패배하고 후퇴하던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공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라며 "이렇게 패배했지만, 선조들의 혁명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모금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외면 이장협의회와 청년회, 체육회, 마을 주민들도 지난 9일 성금 226만 원을 전달하며 새로운 동학농민혁명 동상 제작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은귀 협의회장은 "신외면은 청년 시절의 전봉준 장군이 거쳐왔던 곳이

자, 고부 농민봉기 이후부터는 가족과 함께 살았던 마지막 거처지가 있는 곳"이라며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모금 운동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신영우 동상 재건립 추진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과 연관이 있는 마을의 기부금 모금은 동상 재건립의 의미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모금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추진위원회는 전봉준 장군과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농민군의 동상 제작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모금액은 1인당 1만원 이상으로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 추진위원회(농협 301-0233-6115-941)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